

건강 칼럼

가을철 주의해야할 발열성 질환

가을철 바쁜 일손으로 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농민들에게 발열성질환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성묘나 나들이 등으로 이질환들에 걸릴 위험이 있다.

▲치사율이 높아 예방이 중요한 한국형 출혈열

“유형성 출혈열”이라고도 부르는 한국형 출혈열은 들쥐나 집쥐의 배설물에 섞여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감염을 일으킨다. 불과 가을에 발생하는데 가을, 특히 11월에 많이 발생한다. 도시의 사례도 있지만 대개 들일을 많이 하는 농촌지역 주민이나 군인들에게 잘 생긴다. 어느 연령이나 나타날 수 있으나 일을 많이 하는 젊은 층에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자주 발생한다. 군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경로는 등줄쥐가 배설한 오염 물질이 사람의 호흡기로 옮겨진다. 증상으로는 전신 쇠약감·식욕부진·현기증·근육통·두통 등 감기 증상과 같은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38~41℃의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이 동반된다. 2~3일 후부터는 구역질과 구토가 생기고 배가 아프다. 얼굴과 목 주위가 붉게 달아올라서 마치 햇볕에 쬐는 것 같은 모양이 되며 결막에 충혈이 생긴다. 저혈압이나 신부전이 잘 오며 다른 합병증도 많이 생기므로 심한 경우에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더라도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이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하기 때문에 특효약이 없다. 치사율이 7~10%나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생겼을 때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예방주사가 개발돼 있어 논밭에서 일을 많이 하는 농민, 야외에서 훈련을 많이 받는 군인, 야외로 자주 놀러가는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첫해에는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을 맞고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된다.

▲애벌레 유충에 쏘여 임파선염이 부어오르는 썩썩기무시병

썩썩기무시병은 우리나라의 가을에 유행하는 급성 열성 출혈성 질환의 약 30%를 차지하며, 유형성 출혈열이나 렙토프라즈마증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뱀چه자라는 일종의 작은 새균에 의해 전염되는 열성질환으로, 특이하게도 진드기의 애벌레가 사람 피를 빨아 먹을 때 감염된다. 병이 유행하는 시기는 10월과 11월에 집중돼 있고 12월에도 상당수 발생한다. 진드기의 유충은 평소에는 풀이나

나무에서 잔액을 빨아먹고 생활하지만, 이 유충이 애벌레로 변태할 때 동물의 조직액이 필요해 피를 빨아먹는데 이때 사람에게 감염된다. 풀이나 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일을 하거나 밭에 앉아 김을 매거나 일을 할 때에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므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다.

진드기의 애벌레에 쏘이면 대개 모르고 지나치지만 10~12일이 지나면 쏘인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차츰 짓물러 결국에는 흑갈색의 딱지가 앉는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며 발진이 떨어지고 온몸이 나른해지며 기침이 난다. 쏘인 곳 주위에 임파선이 부어오르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생긴지 5일째가 되면 몸통에 붉은 반점이 시작돼 다리로 퍼져가며 결막 충혈이 나타나고 간지 켜지고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발병한지 2주가 지나면 열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회복된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을 때에는 사망할 수도 있지만 항생제를 쓰면 치료가 쉽다. 진드기의 애벌레에 물리지 않기 위

해 수풀 속이나 밭에서 작업할 때에는 토시·장갑·장화를 착용하고 작업 후 휴식을 취할 때에도 풀밭에 그냥 앉지 말고 꼭 깔개를 깔고 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모기와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뇌염

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운반이 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포유류 등의 피를 빨다 모기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다시 감염된 모기가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 전파시키는 것이다. 이때 사람의 피를 빨아 감염시키면 바로 일본뇌염에 걸리게 된다. 일본뇌염은 감염 이후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기와 접촉이 있은 후 5~15일의 잠복기를 거친다. 이후 고열·지각 이상·두통·현기증·복통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행히 증상이 약화되면 7일 전후로 열이 내리며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본뇌염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 치료를 실시한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생후 6~12개월까지는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생후 12개월 이후에는 일본 뇌염에 대한 면역이 없어지게 되므로 12~24개월 사이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독자제언

비극의 악순환 가정폭력 대물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거나 죽이는 패륜사건은 가족이 가족을 괴롭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사건 중 극단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 내에 아무런 문제 없이 패륜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이야기이다. 평소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어 학대받은 아이들이 커서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아이일 때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되지 않고 무사히 넘겼더라도 커서 자신이 패륜을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인가? 가정폭력을 절대 가벌계 보아서는 안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가정 내에서 어릴 때부터 사소한 폭력도 허용되서는 안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이를 진정 변화시키는 건 사랑의 애로 포장된 폭력이 아닌 진정어린 관심과 대화라는 사실을 알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관심과 사랑으로 키우고 자신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의 악순환은 사라질 것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112신고할때 정확한 위치가 필수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되고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신고청구가 다양화되면서 112신고가 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2014년 1877만 건, 2015년 1910만 건, 2016년 1956만 건이 접수됐다. 112신고 중에 신고처리를 더디게 만드는 신고는 비명소리만 들리고 전화가 끊긴 경우, 위치 추적해서 빨리 오라고 명령조로 말하고 끊는 경우, 어떤 소리인지 파악하기 곤란한 소리가 들리다가 끊겨 다시 전화하면 그냥 끊는 경우, 살려달라는 말만 하고 전화가 꺼진 경우 등이 있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일 때도 있지만 급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고 장난 전화인 경우도 많다. 이처럼 신고자의 위치나 신고 내용

이 부정확할 경우 112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내용이나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신고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112신고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간판이나 가게 전화번호, 전봇대 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배준량 순경경찰서 순화파출소 순경

사설

국비 7300억 추가 확보 반드시 성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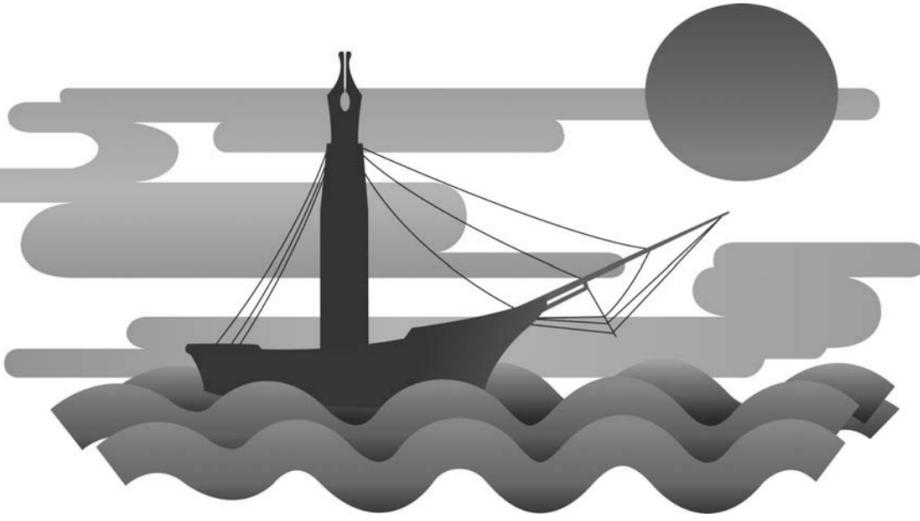
전북도는 용기를 내야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이쪽의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 국비 7300억원을 추가 확보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예전처럼 암전해서는 안되고 능동적으로 나가야겠다. 저번에 도지사와 두 부지사가 예산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여줬는데 이번 11월 2일 예산 심의가 들어가기 전부터 다시 또 그같은 행보가 소망스럽다. 전북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오래도록 차별을 당해왔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무슨 말이나 하면 정부의 예산 차별에 이의를 말해야겠다는 것이다. 국토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전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나후의 모습이 뚜렷하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론과 맞지 않다. 전북도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경청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한 손에 쥐어지는 평가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가 안된 지역 발전 청사진은 그냥 폐지일 뿐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도민들에게 평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했다. 다른 지역의 예산 증가에 비해 전북의 예산은 겨우 10% 정도를 따라가는 형편이었으니 차별이라고 보든 차별이 아니었다. 이같은 지역 차별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한참 뒤쳐져 있다.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그대로였으니 나후가 크게 표나고 있다. 그러므로 추가 예산확보 7300억 원 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전북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0%였다. 전국에서 유일한 기록이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해마다 예산이 증액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인텔 말이다.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증액에 대해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번에 전북도는 예산과 다른 할약상을 보여야 한다. 이미 두 번이나 말한 것을 또 거듭 말하고 있거니와 7300억 추가 확보는 전북도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의 탄소산업 갈 길 멀다

탄소산업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요즘이다. 저번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설립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찌 지금은 잠잠한 까닭이다. 우리 전북의 탄소산업은 더욱 발전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북도는 지역 탄소산업의 영역을 계속 넓혀야 한다. 그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그 어느 광역지자체의 그것보다 역사가 깊다. 그런데 현주소가 답답하다. 야심차게 추진해온 역사가 10여년이 더 지났음에도 크게 표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왔다지만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두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후발주자 지역인 다른 광역지자체가 흑역사를 품고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북이 그렇다.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가 보다 오래인데도 경북의 그것과 별다른 격차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곧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야기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공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업군 형성이 안되면 상용화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려면 대략 난감이다. 전북의 백년먹거리 사업이라며 홍보할 때만해도 관련기업 240개 유치와 3만5000명의 고용 창출을 말했었는데 말이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 탄소산업의 갈 길은 멀다. 탄소산업의 현실을 보자면 실망스럽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창출 성적이 기대했던 것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까닭이다. 효성 공장이 2013년에 준공할 때만해도 2020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지 궁금하다. 2020년까지라고 했으니 그 기한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다. 그래도 약속한 그때까지 그 액수를 온전히 투자할 지가 미덥지 않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실천을 종용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 또한 모범을 보여 탄소산업계에 신선한 탄력을 주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